

EXPERT
KNOW-HOW

별에서 온 그대 시간을 쪼개는 마법 '타임 슬라이스(Time Slice)' 장면 엿보기

+ SBS아트텍 CG팀
(류상수 디자이너, 김도한 노상희 김자경 변자영 문승주 2D Compositor)

영똥하면서도 통통 튀는 한류 톱스타 천송이(전지현)와 차갑고 시크한 매력의 외계에서 온 남자 도민준(김수현)의 환상 조합으로 첫 방송부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별에서 온 그대> 재미있게 감상하셨나요? '천도커플'이라 불리는 두 주인공들의 불링불링한 비주얼과 영똥 발랄한 매력의 스토리, 액션과 사극이 어우러진 다양한 재미로 마치 종합선물 세트와도 같은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특히 외계에서 온 남자라는 소재로 판타지적인 요소를 더하며 흥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소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드라마 첫 회부터 퀄리티 높은 CG와 매트릭스 촬영기법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 신비로운 도민준의 능력을 시각적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해 사용된 '타임 슬라이스(Time Slice)' 촬영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송이를 구해라

1609년 비행 물체 출몰과 함께 올 블랙 차림으로 지구에 온 도민준(김수현). 지구와 매우 흡사한 환경의 행성에서 날아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한양이 서울이 되도록 400년 넘게 살았습니다. 남들에 비해 시력과 청력이 7배 정도 뛰어난 도민준(김수현)은 시대를 넘나드는 인연으로 조선시대 천송이와 어린 천송이를 위기에서 구하곤 합니다. 어느 눈 내리는 날 어린 천송이가 큰 트럭에 부딪칠 뻔하던 그 순간 위험을 감지한 도민준(김수현)이 나타나 극적으로 그녀를 구하곤 사라집니다. 마치 매트릭스의 한 장면과도 같은 이 장면이 그토록 신비로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프로를 이용한 '타임 슬라이스(Time Slice)' 촬영기법과 정교한 CG에 있었습니다.

내용전개



흠... 이처럼 잘생긴 우주인이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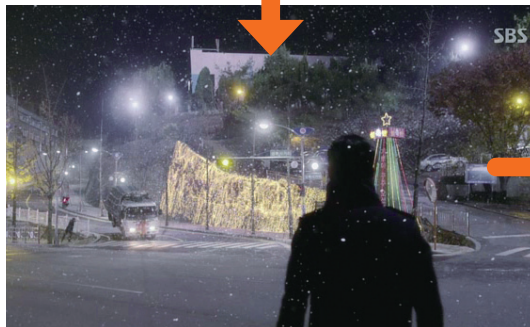
야밤에 달리기하는 어린 천송이



비상구 포즈로 위기를 맞는 천송이



멀리서 손을 뻗어보는 사고 유발자



다 지켜보고 있는 우주인



결국 구해냄!!

‘타임 슬라이스(Time Slice)’란?

<별에서 온 그대> 1화 속 천송이의 트럭 사고 장면은 첫 화의 하이라이트와도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인물을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여러 대의 카메라를 원형으로 배치해 촬영하는 ‘타임 슬라이스(Time Slice)’ 기법을 사용해 절묘한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시간을 조각낸다는 뜻의 ‘타임 슬라이스(Time Slice)’ 기법은 매트릭스에서 사용되며 인기를 얻은 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다양한 각도에서 연달아 촬영된 장면을 연이어 보여줌으로써 같은 시간을 좀 더 길~게 볼 수 있는 효과를 주는 것이죠. 초당 많은 수의 프레임으로 세밀한 장면을 감상할 수 있는 초고속 카메라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타임 슬라이스’의 경우 다양한 각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구분을 달리하게 됩니다.

<별에서 온 그대> 역시 고프로 카메라를 이용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되었습니다. 고프로(GoPro)라는 명칭이 일반인들에게 생소할 수 있지만, 그 모습은 낯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간혹 귀신체험이나 스카이다이빙, 스노우보드 등 레저를 즐기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화면에 담을 때 작은 캠코더가 헬멧에 달려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처럼 헬멧이나 몸체에 달 수 있게 만든 가볍고 작은 캠코더를 고프로라고 합니다. 특정 제품의 모델명이 유명해져 하나의 개념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 속 트럭 사고장면이 바로 이



GoPro Hero3



고프로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된 것입니다. 이번 장면을 위해 총 46대의 고프로 카메라가 사용되었습니다. 인물을 가운데 둔 후 46대의 고프로 카메라를 원형으로 배치해 동시에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타임 슬라이스' 기법이 스튜디오나 블루 스크린에서 촬영되는 것에 비해 이번 촬영은 야외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고려할 부분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총 60대가 넘는 카메라를 똑같은 설정으로 찍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처럼 어려운 준비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이 최대한 극적으로 표현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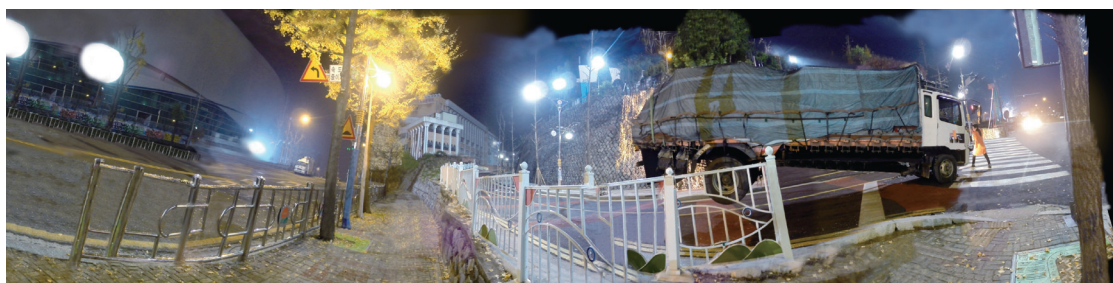
고프로(GoPro) 설치모습

마법 같은 CG후반 작업

이렇게 촬영된 장면의 편집본은 CG후반 작업을 통해 완벽한 장면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총 46대의 고프로 카메라를 이용해 반 회전되는 영상을 촬영한 후 이 영상에서 배경만을 따로 분리해 파노라마 형태로 변형합니다. 둥근 3D 지구본을 짝 펼친 평면 형태로 바

찍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경과 인물이 함께 촬영되었으므로 인물을 드러낸 후 비어버린 공간은 매트페인팅 작업을 통해 실사와 똑같은 배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 후 따로 분리한 인물의 몸, 팔, 손을 각자 레이어 별로 분리한 후 39프레임 영상을 360프레임으로 늘려 느리게 회전하는 영상을 만들거나 혹은 57프레임으로 줄여 빠르게 회전하는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프레임당 쪼개지는 수백 장의 장면을 일일이 원본과 매칭하며 작업하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과 높은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인 것이죠. 이 짧은 한 장면을 위해 총 5명의 작업자가 꼬박 일주일이 넘는 시간을 들여 완성했습니다. 다른 드라마의 CG 작업을 하면서 촉박한 시간 내에 작업을 완성해야 하므로 야근과 밤샘을 마다하며 완성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CG작업과정 일부



인물 제거 후 배경을 파노라마 형태로 재구성한 모습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장면 조각조각을 잘게 나눠 배경과 합치는 작업과정 중